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 예배
이사야 6:1-7
2025 년 11 월 30 일 오전 11 시

거룩 앞에서 깨끗하게 되다

< 주여 도우소서 >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실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가 선행됨을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 그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 장은 선지자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룩 앞에서 이사야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고 사명을 받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 웃시야가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허나 이사야는 웃시야 생전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유다 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사 1:1). 웃시야 시대에 유다는 매우 강성하였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웃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웃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대하 27:8). 웃시야는 블레셋을 이기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매우 막강해졌습니다. 웃시야는 307,500 명의 정예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휘하의 군대가 삼십만 칠천오백 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대하 27:13).

이러한 시대에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사 3:8). 그 이유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웃시야 왕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대하 26:16). 웃시야는 제지하는 제사장에게 화를 냈습니다. “웃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대하 26:19). 화를 낼 때 욱설도 동반되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고관들과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비견되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사 1:10). 백성들은 “주일”에는 예배하고 “주중”에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사 1:13). 그리고 손에 무죄한 피를 가득 묻혔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사 1:15). 그래서 예루살렘은 살인자들이 판을 치는 성읍이 되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다”(사 1:21).

또한 고관들은 뇌물에만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사 1:23).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였고 의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사 5:23).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 같이 되었고도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사 5:25).

물론 실제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은 150 년 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0 년 동안 심판을 유보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웃시야 왕에게는 즉각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웃시야 왕은 나병환자가 되어 별궁에 격리되었습니다. “웃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었고 나병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대하 26:21). 이사야는 웃시야에 대한 책을 이 기간 동안 저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웃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대하 26:22).

웃시야는 나병에 걸린 후 10 여년 정도 더 살다가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성전 뜰에서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사 6:1).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위에는 날개가 여섯 개인 스랍들이 있었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2 절). 스랍은 ‘불타는 존재들’이란 뜻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천사입니다. 스랍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천사로 여섯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보통 천사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요 20:12). 성경은 천사에 대해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묘사하는 대신에 흰 옷을 입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허나 날개 달린 천사도 있습니다. 그룹과 스랍입니다. 스랍이 여섯 개의 날개가 있다면, 그룹은 네 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 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겔 10:20-21).

날개 달린 천사인 그룹과 스랍은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점에서 지위가 매우 높은 천사들입니다.

스랍의 여섯 날개는 각자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날개 돌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아무리 천사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감히 직접 바라보지 못합니다. 돌로는 발을 가립니다. 중근동 문화에서 ‘발’은 천하고 더러운 곳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려야 했습니다. 돌로는 날아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날개의 본래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편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6 절). 스랍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날아 다니기도 하지만, 보통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3 절).

스랍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며 거룩을 세 번 반복하여 찬양합니다. 천사들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나 ‘공의롭다 공의롭다 공의롭다’나 ‘능력있다 능력있다 능력있다’와 같이 찬양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능력도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기는 하나 거룩보다 앞서지는 못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보다 다른 성품을 앞세우면 이단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콜라당은 거룩보다 사랑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함께 자신의 아내를 공유하며 음행을 정당화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세 번 거룩하다라고 부른 찬양을 삼성창(Trisagion), 그리스어로는 트리사기온이라고 합니다. 삼성창은 정식 성찬식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리베라 소년합창단이 부르는 상투스도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삼성창입니다. 천사들의 우렁찬 삼성창에 땅이 흔들렸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4 절).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습니다.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으로다 하였더라”(5 절).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부터 이상을 보고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사 2:1).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입술이 부정한 사람일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는 존재를 깨닫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췌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사 6:6).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췌숯을 불집게로 집어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왔습니다.,

성전 제단에는 항상 불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의무 중 하나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전하는 것입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레 6:13). 최초의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레 9:24). 스랍은 제단에는 불 타는 췌숯 중 하나를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사 6:6-7). 제단 췌숯로 이사야의 악은 사라지고 죄는 사해졌습니다. 이로써 이사야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신 후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사 6:8). 그러나 강압적으로 이사야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부르심에 응답한 이사야를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꼭 목회자나 선교사로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성직에만 소명(부르심)이 있었다고 생각하였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성직 뿐 아니라 모든 직업에 소명이 있었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지입니다. 우리가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딤후 2:21). 그리고 그 깨끗함의 시작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서 깨끗케 됨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oli Deo Gloria >

Becoming Clean Before the Holy God (Isaiah 6:1–7)

Rev. Junghoon Park
 Wylie Korean Methodist Church
 Sunday Worship Service
 November 30, 2025 • 11:00 AM

Becoming Clean Before the Holy God

< Lord, Help Us >

As Christians, we often ask ourselves, “*How does God want to use me?*” Yet Scripture teaches us that before receiving a calling, one essential experience must come first: **standing before the Holy God**—the moment we truly see who we are before Him.

Isaiah 6 records the moment when the prophet Isaiah encountered God’s holiness and realized the depth of his own sin before he received his calling. The outward circumstances of his time seemed prosperous, yet spiritually the nation was deeply corrupt. And it was precisely in that age that God called Isaiah.

Today, let us examine how Isaiah became clean before God’s holiness and received his mission.

1. Isaiah’s Calling During the Reign of King Uzziah

Isaiah was called as a prophet in the year King Uzziah died. Yet even during Uzziah’s reign, Isaiah had already seen visions concerning Judah and Jerusalem:

“The vision concerning Judah and Jerusalem that Isaiah son of Amoz saw during the reigns of Uzziah, Jotham, Ahaz and Hezekiah, kings of Judah” (Isa. 1:1).

Uzziah’s reign brought military strength and political success:

“The Ammonites paid tribute to Uzziah, and his fame spread as far as the border of Egypt, because he had become very powerful” (2 Chron. 27:8).

His army numbered 307,500 trained soldiers—an impressive force (2 Chron. 27:13).

Yet despite this appearance of strength, Isaiah saw a vision of Jerusalem’s downfall:

“Jerusalem staggers, Judah is falling;
their words and deeds are against the Lord,
defying his glorious presence” (Isa. 3:8).

2. The Sin of Judah and Its Leaders

King Uzziah committed a grave sin by entering the temple to burn incense—something only the high priest was permitted to do (2 Chron. 26:16). When the priests rebuked him, he became enraged, and leprosy broke out on his forehead (2 Chron. 26:19).

The leaders and people of Judah were compared to Sodom and Gomorrah:

“Hear the word of the Lord, you rulers of Sodom;
listen to the instruction of our God, you people of Gomorrah!” (Isa. 1:10)

Their worship had become detestable:

“Stop bringing meaningless offerings!
Your incense is detestable to me...” (Isa. 1:13)

Their hands were full of innocent blood (Isa. 1:15), and Jerusalem had become a city overrun by murderers (Isa. 1:21). The rulers sought bribes, neglected orphans, and ignored widows (Isa. 1:23). Judges justified the wicked and condemned the righteous (Isa. 5:23).

Because of this, God’s anger came upon Judah and Jerusalem (Isa. 5:25).

Though the actual destruction of Jerusalem occurred 150 years later, God patiently withheld judgment, waiting for His people to return. Yet Uzziah’s personal rebellion brought swift punishment: he lived isolated as a leper until his death (2 Chron. 26:21–22).

3. Isaiah’s Vision of the Holy God

In the year Uzziah died, Isaiah had a life-changing encounter:

“I saw the Lord, high and exalted, seated on a throne; and the train of His robe filled the temple” (Isa. 6:1).

Around God stood seraphim, each with six wings:

“With two wings they covered their faces, with two they covered their feet, and with two they were flying” (Isa. 6:2).

The name *seraphim* means “burning ones”—heavenly beings aflame with love and devotion for God. Scripture shows that ordinary angels are not described with wings, but seraphim and cherubim (with four wings, Ezek. 10:20–21) stand closest to God.

Each pair of wings had a purpose:

- Two covered their faces—unable to gaze directly at God’s perfect holiness.
- Two covered their feet—a sign of humility in the ancient Near East.
- Two were used for flight—to carry out God’s commands.

But above all, seraphim were worshipers. They cried out:

“Holy, holy, holy is the Lord Almighty;
the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 (Isa. 6:3).

This threefold cry is known as the *Trisagion*—a confession not merely of God’s attribute but of His very essence. Scripture never records angels singing, “Love, love, love,” or “Mighty, mighty, mighty.” Holiness is the supreme revelation of who God is.

At their thundering praise, the foundations shook and the temple filled with smoke (Isa. 6:4).

4. Isaiah’s Confession and Cleansing

Encountering the Holy God, Isaiah saw his own sin:

“Woe to me! I am ruined!
For I am a man of unclean lips
and I live among a people of unclean lips...” (Isa. 6:5)

Though Isaiah was among the holiest in Judah—already receiving visions from God (Isa. 2:1)—before God’s holiness he recognized himself as utterly unclean.

Human beings recognize their sinfulness only when they stand before God’s holiness.

But God did not leave Isaiah in despair. One seraph flew to him with a live coal from the altar—fire that had originated from God Himself (Lev. 9:24) and was never to be extinguished (Lev. 6:12–13).

Touching Isaiah’s lips, the seraph declared:

“See, this has touched your lips;
your guilt is taken away
and your sin atoned for” (Isa. 6:7).

Isaiah became a new creation—cleansed, forgiven, restored.

5. Isaiah’s Willing Response to God’s Call

Then Isaiah heard the Lord’s voice: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Isa. 6:8)

God did not coerce him. Cleansed and transformed, Isaiah responded freely:

“Here am I. Send me!”

God sends not the most talented or socially powerful, but the one who has been made clean before His holiness.

Conclusion — The Calling Begins Before the Holy God

God calls us today to participate in His Kingdom work. He does not call only pastors or missionaries; the Reformers taught that every vocation can be a divine calling.

Thus, what matters is not *what* you do, but **how clean and holy you are before God**.

When we stand before His holiness, He cleanses us, prepares us, and uses us as vessels for honorable purposes:

“Those who cleanse themselves... will be instruments for special purposes,
made holy, useful to the Master, and prepared to do any good work”
(2 Tim. 2:21).

May you stand before the Holy God, be cleansed by Him, and become a vessel He uses for His glory.

Soli Deo Gloria.

